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신규 예능 '순례자들 in Spain' 6월 6일 (금) 공개 확정! 녀샐, 조나단, 코미꼬 라리가 성지 순례 떠난다!

2025. 5. 15.

쿠팡플레이가 선보이는 신규 예능 <순례자들 in Spain>이 1차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축구 팬이라면 한 번쯤 꿈꿔왔던 스페인 라리가 직관길에 나선 세 남자 조나단, 녀샐, 코미꼬의 성덕 실현 버라이어티 <순례자들 in Spain>은 오는 6월 6일 (금) 저녁 8시 첫 공개된다.

축구 팬들의 로망을 예능으로 실현한 이 시대의 '축덕 헌정 콘텐츠'

예능 대세 조나단 X 녀샐 X 코미꼬 찐축덕 시점으로 떠나는 라리가 성지 순례

<순례자들 in Spain> 1차 포스터 공개와 함께 6월 6일 (금) 저녁 8시 공개 확정!

중계부터 예능까지 한층 풍성해진 쿠팡플레이의 축구 포트폴리오 입증



쿠팡플레이 예능 <순례자들 in Spain>은 **축구에 진심인 세 남자 조나단, 녀살, 코미꼬의 설렘 가득한 스페인 라리가 직관기를 다룬 성덕 실현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K리그,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 1까지, 다수의 축구 중계는 물론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를 통해 국내 스포츠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쿠팡플레이가 축구팬의 '로망'을 정조준한 유럽 축구 직관기 <순례자들 in Spain>으로 다시 한번 축덕들에게 설렘을 선사한다.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 '라리가 직관 성지 투어'에 조나단, 녀살, 코미꼬가 함께한다. 단순한 여행을 넘어, 축구에 대한 진심을 가진 세명의 출연자가 팬의 시선으로 직접 현장을 누비며 생생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조나단, 녀살, 코미꼬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축구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 온 인물들로, <순례자들 in Spain>에서도 그 열정을 아낌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들이 '축덕'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라리가 현장은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공감을 선사할 전망이다.

'조선 강테' 조나단은 열정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라리가 선수들과의 교류에서도 중심축을 맡아 웃음을 책임진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무장한 '입축구' 녀살은 본업 래퍼답게 한마디 한마디에 해설진급 분석과 예능감을 풀어내며 팀의 브레인 역할을 예고한다. 여기에 핵심 키플레이어 '유사 현지인' 코미꼬는 예측 불가한 리액션과 하이텐션으로 무장한 반전 매력을 통해 피지컬은 부족해도 예능 포지션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질 예정이다.

이에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조나단은, 촬영이 끝난 후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축덕의 입장으로 그 어떤 촬영보다 설렘”이라고 진심 어린 감동을 남겼다. 녀석 역시 “라리가 직관은 제 인생 버킷리스트였다. 그걸 예능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며 팬심 가득한 소감을 전했고, 코미코는 “처음엔 긴장했는데,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텐션이 폭발하더라”며 특유의 리액션으로 기대감을 더했다.

축구 팬들은 물론 예능 팬들의 마음까지 정조준 할 쿠팡플레이 예능 <순례자들 in Spain>은 6월 6일 (금) 저녁 8시 첫 공개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